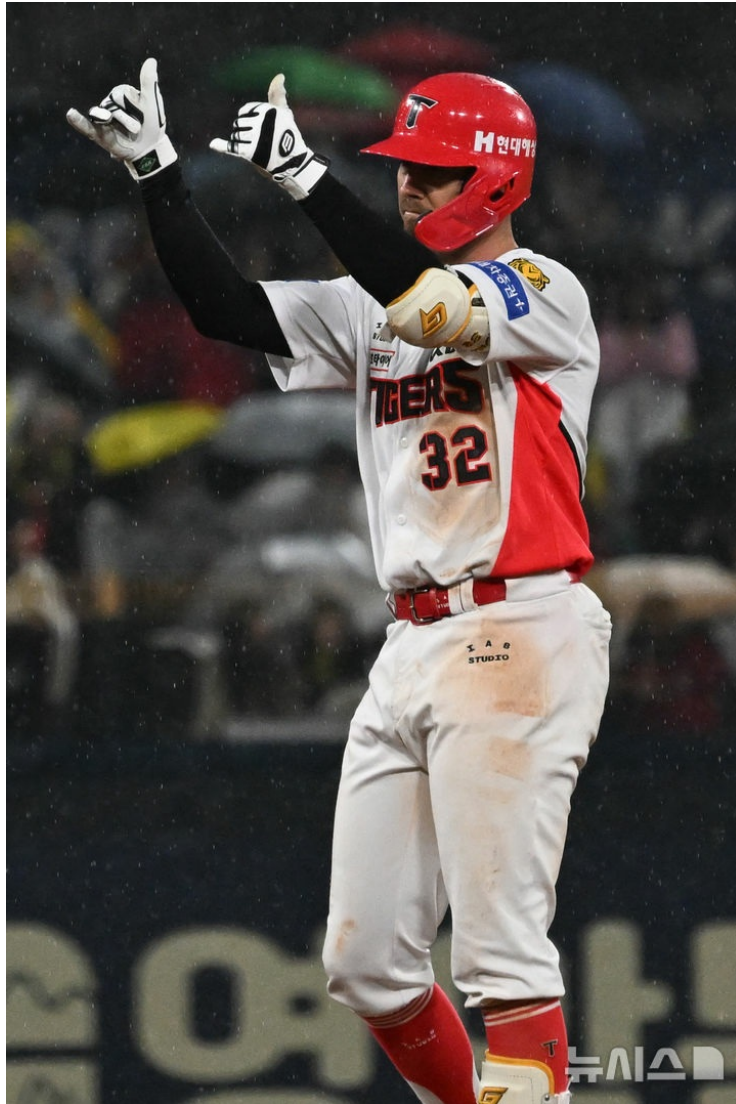


## KIA, '아시아쿼터 유일 야수' 데일 방출…투수 시라카와 영입 추진

등록 2026.05.26 12:06:15



[광주=뉴스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 대 KIA타이거즈의 경기. 8회 말 KIA 데일이 우익수 오른쪽 2루타를 날린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2026.04.03.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아시아 쿼터 내야수 제리드 데일과 결별을 택했다.

KIA 구단은 26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데일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데일은 올 시즌 KBO리그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 중 유일한 야수다.

컨디션 난조로 시즌 개막전에 나서지 못했으나 두 번째 경기부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뒤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며 외국인 타자 데뷔전 이후 연속 안타 최장 기록 2위를 작성했다.

그러나 데일은 이달 출전한 7경기에서 타율 0.136에 그치는 등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데일은 지난 11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후 퓨처스(2군)리그 7경기에서 타율 0.364를 기록했으나 결국 짐을 싸게 됐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한 데일은 3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6 1홈런 6타점 20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644의 성적을 거뒀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1회 초 두산 선발 시라카와가 공을 던지고 있다. 2024.08.08. hwang@newsis.com

KIA는 새 아시아 쿼터 선수로 지난해 KBO리그를 경험했던 일본인 우완 투수 시라카와 게이쇼 영입을 추진 중이다.

KIA 관계자는 "시라카와와 계약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메디컬 테스트 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2024년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에서 단기 대체 외국인 투수로 뛰었던 시라카와는 12경기에 등판해 4승 5패 평균자책점 5.65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